문서주의자 퇴비를 번다

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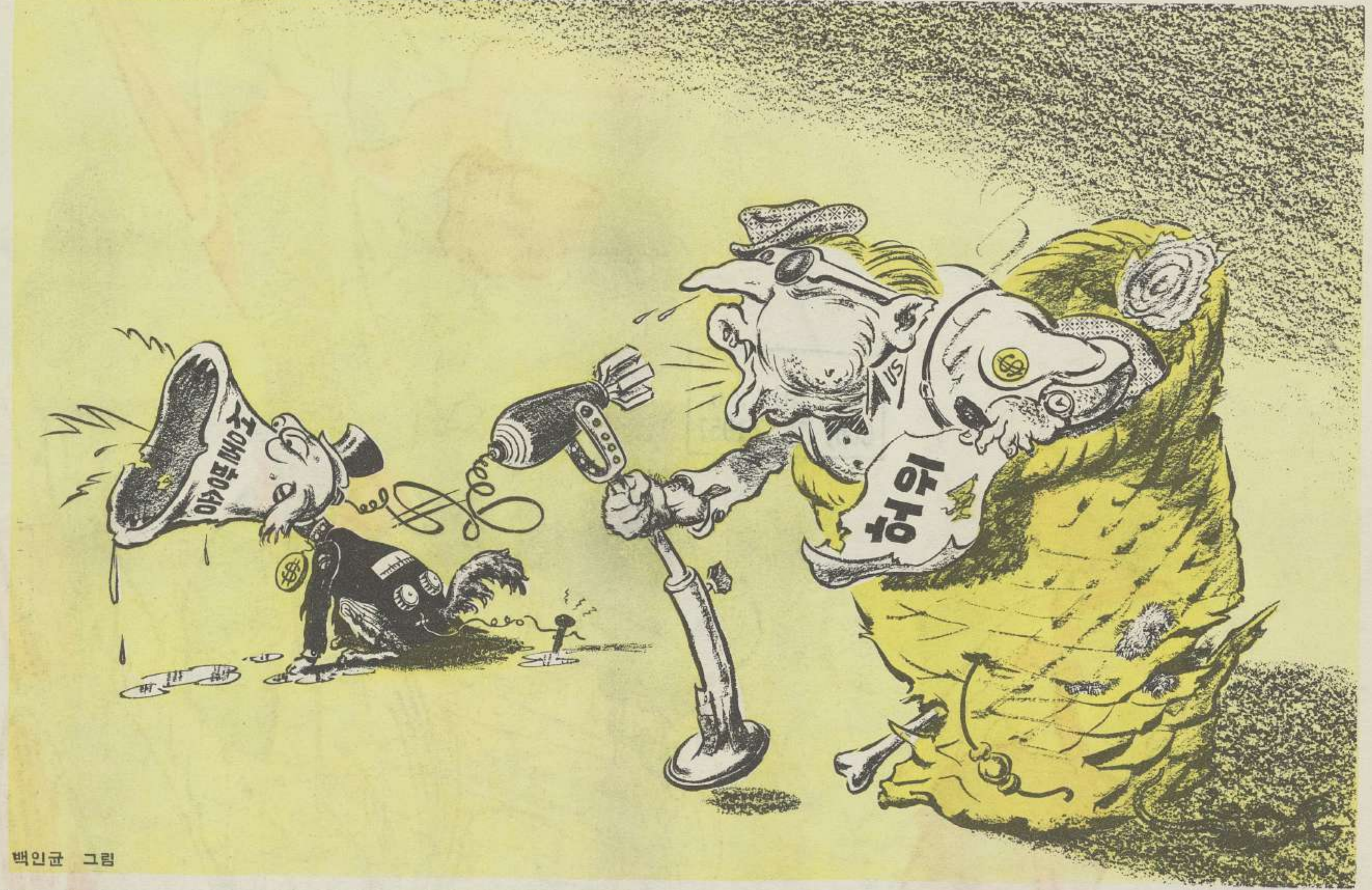
- 3 AUG 26
Copy 1957

홍종호 그림

활살

3월호 1957년(76)

허위 날조 중계소



백인균 그림

「민의 제작 공장」

신 흥순

최근 남조선에 괴상망칙한 공장이 하나 생겼으니 그것은 《민의 제작 공장》이다. 지배인은 리 승만, 부지배인은 리 기붕, 기사장은 내무부 장관 그 아래 여러 작업반들이 있는데 이 공장에서는 번번히 《민의》(民義)를 마치 빵떡 장사 빵떡 찍어내듯 하고 있다.

리 승만이가 미국 놈의 똥을 대고 하도 무법 천지로 독판을 치는 통에 야당측 국회 의원들도 참다 못해 《대통령에 대한 경고안》을 국회에 제출 하였다.

개망신을 당한 승만이가 자기의 실패를 만회해 보려는 심산으로 이번에도 또 《민의》를 조작하였다.

경무대에서 리 승만은 리 기붕을 불러 놓고 야단을 쳤다.

《자유당 놈들은 모두 아가리에 마개를 했나? 갑자기 조막손이가 됐나? 고까짓 민주당 하나 편포 쪼박처럼 못 만들어 놔!》

《대통령각하! 경찰이 무능헌 탓이 올시다. 그것들을 미리 잡두질 못헌 때문입죠.》

《어쨌든 나를 모욕헌 놈들을 국경밖으로 내 쫓자는 국민들의 성토 대회를 열고 《민의》를 보여 주란 말야!》

《네 그전 선거 때 처럼 말입죠? 알았습니다. 우리 자유당과 경찰이 주동이 돼가지구 산하 기관 단체들을 총동원 시키도록 곧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도 경찰국에서는 군 경찰서에 전화로 지시를 준다.

《그리구 말야 이동 스피카루 떠들어대구 프랑카트며 삐라 벽보루 이번 성토 대회의 의의를 인식시키란 말야.》

《아니 벽보는 치안국장 명령 제 1호루 절대 못 붙이기루 되잖았습니까?》

《그땐 그때구 이땐 이때지! 주민들을 깡그리 동원시키되 만약에 안나오는 놈이면 리 대통령을 반대하는 놈으로 간주허란 말야.》

《네, 네……》

《그리구 악대가 있는덴 악대 그게 없는덴 농악대를 내세워서 떠들어 대란 말야.》

《우리 군내엔 그런게 변변치 안은뎁쇼.》

《놋 양푼이나 놋 대접두 없을가? 허다못해 깡통, 바아지쪽이래두 뺑가리 두드리듯 벅적 떠들어 대란 말야!》

《그리구 만일을 념려해서 이번엔 한가지씩 들어야 돼!》

《뭘입쇼?》

《민주당 놈들이 이번 성토 대회를 방해 할지 모르니까 경찰은 총 칼을 들구 자유당은 몽둥일 들구 테로는 주먹을 들구 반장은 수첩을 들구.》

《아니 수첩은 뭘 허나요?》

《적지 뭘해! 안나온 놈은 물론이구, 나와서두 뚜떨대는 놈, 연설 헐때 외면허구 담배만 피우는 놈, 듣다말구 오줌누러 가는 놈 모두 적어 바치도록 허란 말야.》

군에서는 농민을 볶들고 싱갱이질이다.

《이봐! 빨리 모이라는데 뭘허구 있어?》

《어이유, 난 몸이 아파 꼼짝 못헙니다.》

《또 아프단 핑계로구나! 네놈들이 짜구 이러지? 어서 운동장으루 나가!》

《이번엔 또 뭘 허잔 퀸가요?》

《민주당놈들이 말썽만 부리구 나라'일을 망치려 들기 때메 국외루 내 쫓자는 거야.》

《그럼 추곡 매상이니 해가지구 쌀을 송두리채 뺏어간 날 불한당 패 놈들은 왜 거냥 두나요? 우릴 이렇게 며칠식 굶어 눕게 만든 놈들 말이요.》

《씨끄러! 어서 나갓!》

《여보 내 얼굴 분 것 좀 보우 걸음을 걸을수 있겠나?》

《얼굴 분 게 너뿐이야? 이래두 못나가겠어? (총뿌리를 대다).》

《오냐 쏴라! 차라리 죽는게 났다》

《이 자식이? 뉘 앞에서 눈을 부릅뜨구 이래? 엥이 이 자식!》

《아유! 이놈의 새끼 넌 애비두 없니? 요 배라먹을!》

《엥이 가자 가!》(끌어 낸다》

도 경찰국에서 치안국에 하는 전화 보고—

《집합 인원수가 왜 모두 요고야?》

《동원 시키기 참 애 먹었습니다. 그것두 먼 발치에서 구경헌 인원수며 심지어 울타리 구멍으로 내다 본 인원까지두 다 포함시켰게 그렇습니다.》

《원 이런 바보들! 전번 유엔 가입 신청서에 도장받듯 허란말야! 고지식허긴 넨장!》

《그땐 사실 우리 도의 전체 인구 수효보다두 더 많다구 사회의 비난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번엔 약간 좀 줄군걸입쇼.》

《상관 없단 말야, 그 수'자에다가 똥그라미 세개만 더 치란 말야 신문에 발표헐 때두 그렇게 해! 알겠어?》

《예 예》

《그리구 이번에 다른 사고는 없었는가?》

《예 별 큰 사고랄건 없읍니다만 연단에다 돌맹일 던지구 《집어 치어라!》《끌어 내려라!》 허구 야지'군들이…》

《에 그런거야 보통 있는 일이 아닌가?》

《예 그런데 불상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군에서 어떤 순경이 동원시키다가 농사'군 하나를 너무 때려서 그만…》

《죽었단 말인가?》

《예 그래서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음 거참 좋은 자료로군! 그건 말야 분사했다구 해! 분사!》

《분사 라니요?》

《리 대통령을 야당파들이 공격하는 데 대해 너무나 통분해 하던 끝에 사망했다구 말야》

《예, 참! 그러잖아두 그 녕감이 죽을 때 통분해 하면서 《네 천하에 죽일놈들!》 하고 눈을 감았뎁니다.》

이 미국식 《민의 제작 공장》에서는 이렇게 협잡품 《민의》를 대량 생산해서 예정 수'자를 초과 완수하고 있다.

철면피

김 광현

소위 《대한 민국 국회》의 외무 위원장 박 영출은 원래부터 《유명한》 목사이다. 그러길래 그는 모리, 협잡, 밀수등 갖은 추행을 다 하면서도 경건한 얼굴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리승만 박사이시여…》를 찾으며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이번엔 그 기도를 올린 보람도 없이 홍콩(香港)으로부터 고급 시계 5백15개와 양단 6천606마를 밀수한, 그로 보면 극히 소소한 사건 때문에 재판정에 끌려가게되였다.

이것은 박 영출에게는 천만 뜻 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상 인제 와서 이렇게 사소한 모리 사건으로 그를 재판하겠다는 것은 그의 파거 리력을 너머나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그는 일찌기 일제 시대에 《우리는 일본 천황폐하의 아들 딸입니다.》라고 기도를 올리며 동경에 있는 조선 고학생들을 《구원》하겠다고 소위 숭덕 학사(崇德學舍)라는 것을 만들었으니 일제는 그 뜻을 갸륵히 여겼다. 그리하여 일제의 비호를 받는 박 영출은 뻐젓하게 재일 동포들의 주머니'돈을 긁어서 자기배를 듬뿍 불리웠으나 그 누구도 그를 협잡 사기'군으로 재판정에 끌어가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유지 명사》로 치부했다. 왜 그런가하면 그는 고학생들에겐 《…학도병으로 출진하여 가미사마 (하나님)의 나라인 일본을 위하여 사무라이들처럼 활복 자살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설교하며 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았으니 그 시대에 누가 감히 그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재판정으로 끌어갈 수 있었으랴!

그러나 박 영출 자신은 일제가 패망하였을 때 활복 자살은 하지않고 다만 자기 배를 불리워주던 숭덕 학사의 간판을 십자가처럼 걸머지고 현해탄을 건너오며 《…미국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새로운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였으니—실상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은 일제나 미제나 다를배 없었으므로—마츰내 미제의 신임도 얻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박 영출은 다시금 숭덕 학사의 이름으로 걷어드린 돈으로 경찰과 테로단을 매수하여 《국회 의원》으로 당당히 《당선》되였다.

《국회 의원》이 된 박 영출은 《국회 연단》에 서자 대뜸 《우리 한국 국민들은 리 승만 대통령 각하의 아들 딸입니다…》라고 설교하다가 뭇사람의 조소와 멸시를 샀다. 《야당파 의원》들은 그를 연단에서 끄러내리며 미친놈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박 영출은 그가 목적한대로 리승만의 환심을 사는 데 완전히 성공하여 자유당의 선전부장 훈련부장 등을 력임하였으며 지난번 《정 부 대통령 선거》 사무장 노릇을 하였다.

이렇게 《립신 양면》하였던 리 승만의 총도 박 영출에게는 실패의 비운의 날이 닥쳐 왔다. 그것은 리승만이도 할 수 없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지난번 선거에서 자유당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실상 리 승만은 겨우 아슬아슬 하게 대통령 자리를 다시 차지하였으나 부통령 자린 민주당의 장면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므로 자유당에서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리 기붕은 리 승만과 상의하여 그 선거 실패의 원인은 박 영출이가 선거 사무장 노릇을 잘못한 까닭이라고 하며 박 영출이와 같은 계렬의 간부를 멀리하고 새로운 정치 모리배들을 간부로 등용하였으니 마츰내 자유당 신구 간부 사이엔 내분이 일어났다.

야당파들은 이것을 불난 집의 싸움이라고 하며 이 기회를 리용할 것을 엿보고 있었는데 박 영출은 제 버릇 개 못준다는 격으로 여전히 모리 협잡으로 사복을 채우고 있었으니, 드디여 야당파들은 박 영출의 죄상의 일단을 백일하에 폭로하였다. 그런 결과에 《대한 민국》 검찰청은 불구속으로나마 그를 기소해 버린 것이다.

리 승만의 충성심

박승히 그림

마음 놓고 잡수시요 소화제까지 준비되였으니…

최근 서울에서는 《외국 자본 도입 보호 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이 진행되였다. 그것은 작년 11월에 체결된 매국적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에 의하여 앞으로 남조선에 공개적으로 침투될 미국 자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보장 조건을 설정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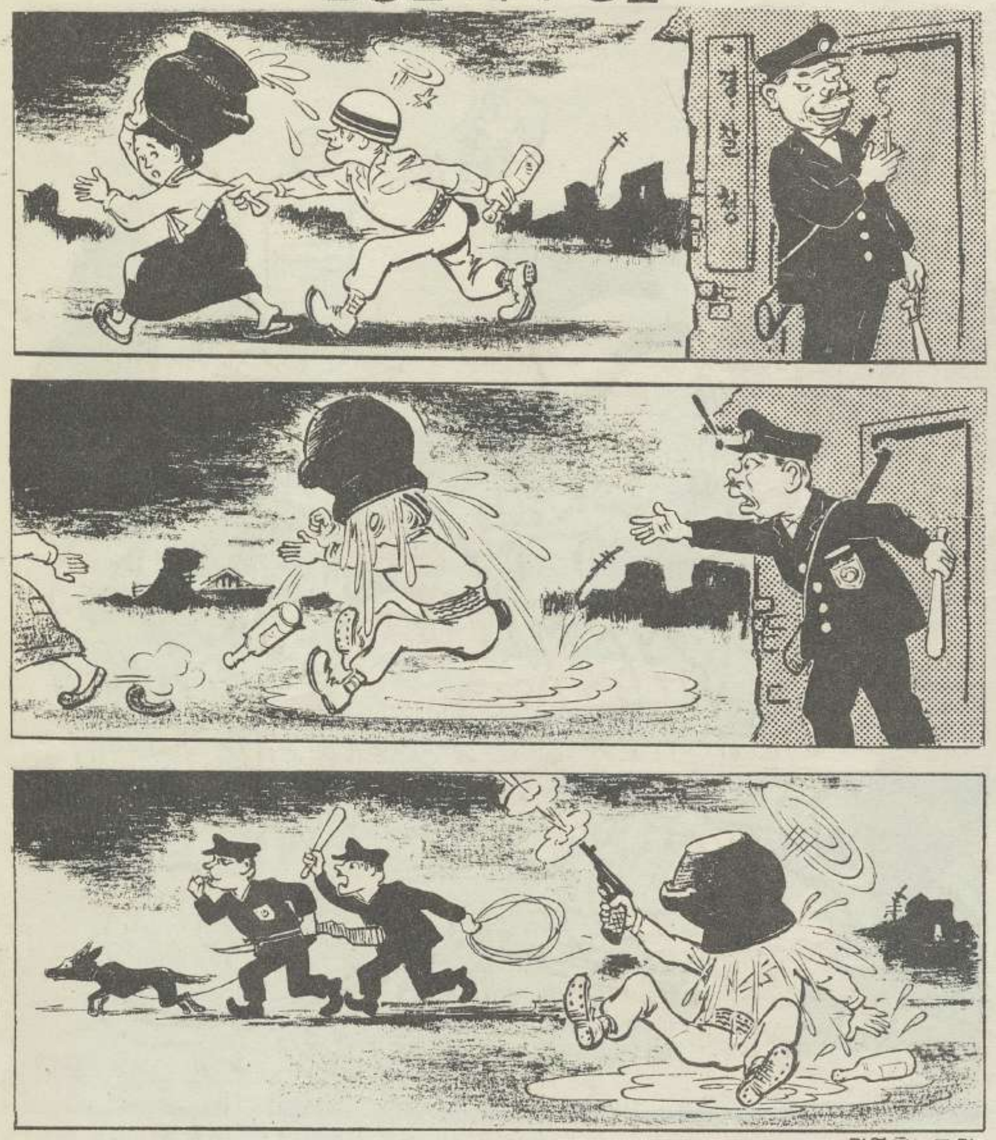
박승히 그림

그들의 《결의》와

…… 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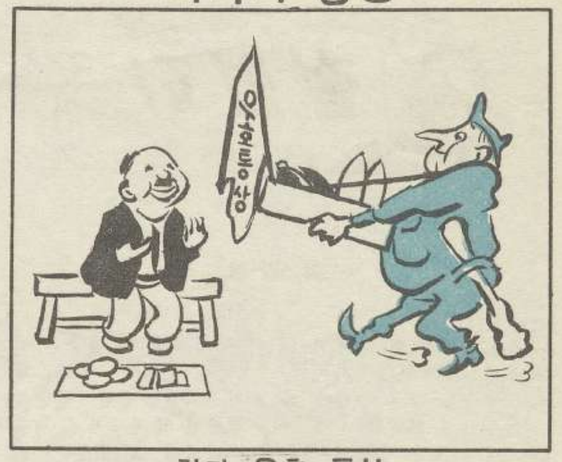
리승만 도배는 금년의 최고 목표는 《북진 준비를 완성》하는데 있다고 떠버리면서 더욱 빈번히 간첩, 테로, 암해 분자들을 우리측 지역에 잠입 시키고 있다.

분망한 괴뢰 경찰



리영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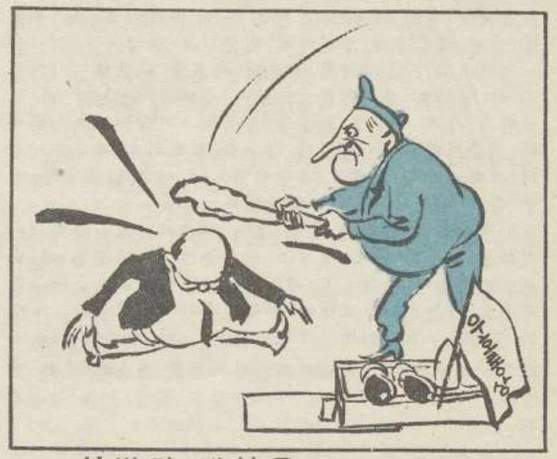
미국식 평등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은

필요한 경우엔
자리도 내 놔 줘야 하며

욕심 나는 것은
집어 삼킬 수도 있으며



신변과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송용남 그림

배고픈 우체통

박 노 을

네거리 요진통 마다에 우체통이 서 있다. 우체통은 편지를 걸우어 먹엇다가는 때가 오면 쏟아 놓기 그 몇 십년—그러니 우체통은 편지를 먹고 살아 간달 수 밖에——.

그렇다고 지금 나는 동화나 수수꺼끼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편지를 먹으며 살아온 우체통이 그나마 편지를 못 얻어 먹는다면 우체통은 배가 고플 수 밖에 더 있을까?

배 고픈 우체통! 요지음 서울 거리에 우체통 마저 배가 고파 네거리에서 떨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 여보게 을지로 친구 저녁이나 얻어 먹었나?

○ 명동 친구 잊지 않고 문안해 주니 고마우이. 저녁이 다 뭔고, 그래두 명동 거린 사람이 더 많이 오고 가니 자넨 뭘 좀 먹었겠구먼?

□ 여기라구 뾰죽한 수 있다던가. 하긴 몇통 먹긴 먹었네만.

○ 그래? 그럼 됏구먼

□ 말 말라구 먹긴 먹었어두 미납 봉투란 말야

○ 그렇다면 도리혀 더 허기만 지겠네 그려!

□ 누가 아니라나. 그런데 대체 이것이 왜 이 모양이여?

○ 자넨 아직 모르나? 체신 료금이 100프로 인상 된걸

□ 그래 어쩐지……

○ 흥! 그것 뿐인줄 아니? 체신 료금은 그렇다 하구 다른 관영 료금들이 말일세. 철도 전기 석탄 담배 소금…심지어 시내 뻐스값 까지두 모조리 올랐는데 말이여……

우체통의 하소연은 밤 가는 줄을 모르고 계속되였다

우체통의 하소연은 옳다! 리 승만 통치하의 남조선, 물가 인하는 커녕 하늘이 낮다고 물가는 올라 인민들은 생활고에 허덕인다.

국가가 운영한다는 소위 관영 기관들의 모든 료금이 또 대폭 인상된 것이다.

보통 승차 료금의 철도 운임 인상은 그만두고라도 3등 급행 료금만 1,060환이라면 기차 타기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전등은 어떠한가? 그나마 매일 같이 오지도 않는 희미한 40촉 전등 한등의 료금이 월 410환이라면 아주까리 등잔이 서울에 등장하여 신화 같이 까물거리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밥을 굶으면 굶었지 담배를 놓고는 못 살겠다는 한숨을 통그람이 연기로 그려 보는 《우울지사》들은 또 어이 살리?

담배 한갑에 150환! 스람프로 찍은 인상 가격이 돈을 더 내고야 살 수 있다고 손을 벌리고 있다.

소금은 또 어떤가? 한가마니에 3,550환!

시내 뻐스가 휭 지나 간다. 어제까지도 20환이면 것이 오늘은 30환을 내란다. 차라리 걸어갈까? 정류장에서 손님들이 투덜거린다.

기차가 덜커렁거리며 시 변두리를 돌아 나간다. 꽁지 꽁지 돈 천환 마련해 가지고 서울로 아들 면회 왔던 촌 늙은이가 어젠줄만 알고 남은것 모조리 내밀어 차표를 사려다 놀래여 한숨 지으며 정거장에 그대로 남은이 또 몇백이나 되련가! 관리들만이 차'간에서 시시덕대는데 기차는 긴 고동을 뿜으며 무심히 달려간다.

《천정 부지의 물가고》란 말은 옛부터 있었으되 오늘의 남조선은 《천상 부지의 물가고》라 할까? 아 하늘은 아직 높으니 리 승만은 안도의 한숨을 짓는가?

백인균 그림

—공부는 해야겠는데
선생이 있어서 못들어 가겠어

태산 같은 근심 걱정 속에 또 한가지 걱정거리. 어린 자녀가 알겠다 배우겠다 하는 것이 무에 잘못이랴 마는, 가뜩이나 생활고에 허덕이는 부모로서는 기뻐만 할 수 없는 일. 옛날 과거 보다도 힘든다는 학교에 간신히 입학시켰으니 어버이로서 할 일은 다했다고 안심할 수 있겠는가!? 자녀가 침식을 잊고 공부를 한다 하여 기쁘기보다 눈물이 앞서는 것을 어이하랴! 학교도 어찌 그리 신통히 군청이나 경찰서의 본을 따는지 날마다 손 내밀고는 〈돈〉

충남 조치원 〈대동 국민학교〉 6학년생 조 영자(13세)는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나는 지금 큰 샘으로 빠져 죽으러 가니 매일 아침에 와서 건져 주시오. 사친회비를 못가지고 학교에 가면 또 매를 맞겠으니 죽으러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이상 끝》

케케 묵은 족보책이나 들추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의례 상투 틀고 망건 썼으리라고만 생각지는 말라! 지금 남조선에선 미국제 현대 무기로 장비된 경찰과 헌병이 족보책 뒤지기에 신바람이 났단다.

《장손이 증손이는 어디 갔느냐 내 놓아라…》

《제발로 간 걸 낸들 어찌 알겠소?》

《그러면 너라도 가자.》

《이 나이에 징병과 무슨 관계요?》

《이놈아, 네 죄를 아직도 모르느냐 여기에 족보책이 있다. 네가 호주지?》

미국 대포밥이 되기 싫어 새 같이 자유를 찾아 날아난 청년들 대신 호주 세대주들을 지금 남조선의 괴뢰들은 잡아들이고 있다고——.

—대통령 각하에게 경고 결의안을 보낸 국회
의원에 대한 민의 운동을 집행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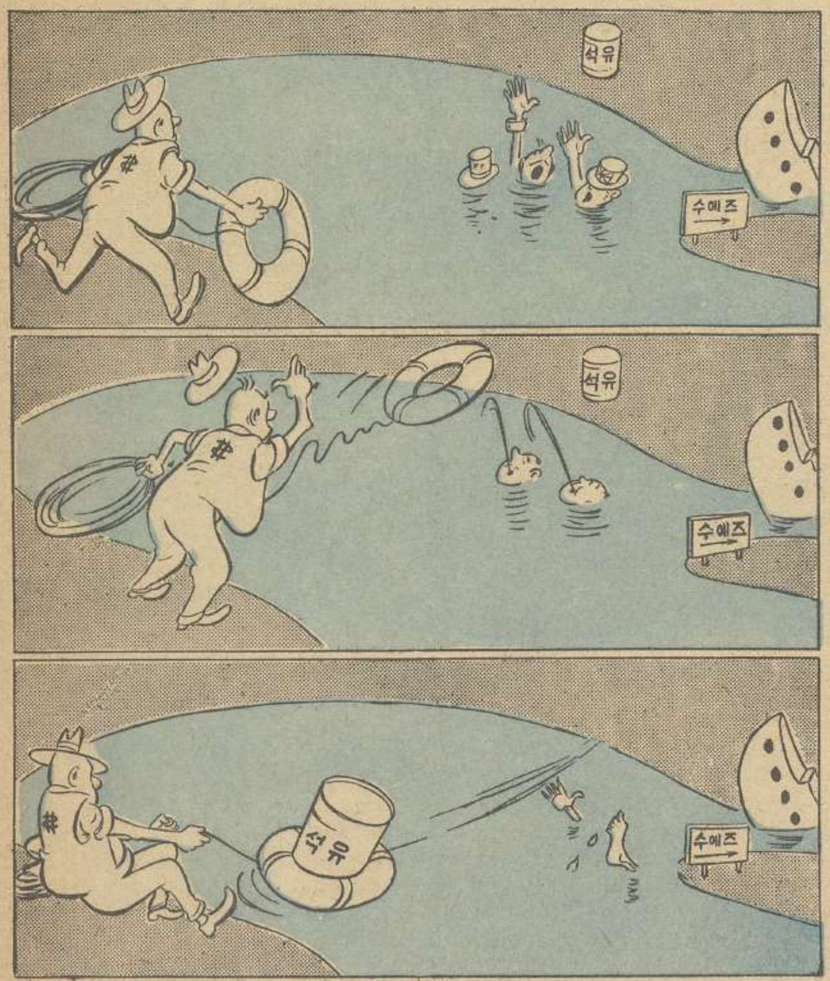
도망간 손자대신……

백인균 그림

크젠 유모어

urzica — 루마니아 "우루지까"

루마니아 풍자 만화 잡지 《우르지끼》
1957, 172호에서 전재
아•루가씨 그림



구 원 자

교형리들의 려행

범죄자들이 자기가 범죄 행동을 감행한 그 장소에 대하여 비상한 애착을 가진다는 말을 누구나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이와 비슷한 애착을 범죄 소설들에서 볼 수 있다.

신년 초에 서부 독일 《전 에쓰에쓰 (특별 경찰대) 련맹》은 림박한 에쓰에쓰 대원들의 불란서 려행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이 련맹 출판 기관지인 《위킹그》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려행 참가자들은 《낯 익은 고장들》을 돌아 다닐 것이며 과거 전쟁 기간에 큰 전투가 버려진 장소들을 방문할 것이다. 에쓰에쓰대의 신문이 귀여운 솔직성으로 결론 짓는 바에 의하면 이러한 려행은 《구라파 호상 리해 정신의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어디까지나 감동적이 아니냐! 에쓰에쓰 대원의 부드러운 심장들은 자기들의 손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확실히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12년이 지난 오늘 히틀러 교형리들은 자기들이 파묻은 불란서인들의 무덤을 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호상 리해》에 대하여 함께 지꺼리고 싶은 것이다. 예정된 려행은 (만일 이것이 성립된다면) 장기간의 려행이 되지않을까 념려된다. 불란서에는 그들이 《기억해 둔 장소》가 너무도 많지 않은가?…

유람객들은 먼저 그들의 기억에 제일 선명하게 남아 있는 오라두루• 슈루• 글란을 방문할 것이다. 그들은 1944년에 이 불란서 도시에서 전체 남자들을 총살했으며 사원에서는 녀자들과 아동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였다.

려행은 오라두루에서 이전 불란서 빨찌산의 요새였던 웨루꼬주로 향할 것이다. 모름지기 서부 독일 손님들 가운데는 수천명의 불란서 사람이 학살된 시기에 빨찌산들에게 피의 제재를 한 산람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생생한 회상을 자아내는 것은 뚤에 있는 가로등들이다. 에쓰에쓰 대원들은 이 가로등들에다 불란서의 애국자들을 매여 달았던 것이다. 다음으로 자동차는 아마 아쓰까시와 샤또부리안시에도 멎을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항쟁의 영웅들을 대량적으로 교살한 장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끝으로 불란서의 수도도 적지 않은 관심을 자아낸다. 실례로 히틀러 도배들에게 총살된 불란서 자유 투사들의 피로써 온 땅이 물든 몬•발레리안이나 웬쎈 산림을 산보한다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을까!…

교형리들의 려행이 《구라파 호상 리해의 정신》에 대해서 어떤 애착을 표시하겠는가는 차차로 나타날 것이다. 에쓰에쓰 대원 유람객들의 불란서 려행은 불란서인들 사이에 비평이 자자한 《소 구라파 범위에서의 불•독 친선》이 론리적으로 보아 어떤 말로에 이르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케 아니 할 수 없다. 승냥이는 양 새끼를 좋아한다는 격언을 기억하면서……

"쏘련 문학" 신문에서

응변적인 락도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도표는 미국 잡지 《뉴쓰위크》 최근호에서 복사한 것이다. 도표에서는 미국의 신년도 예산의 수입과 (웃 부분) 지출 (아래 부분)을 보여 주고 있다. 딸라는 주로 근로자들의 소득세 (375억 딸라)로부터 나오며 이는 그림에 표시된 바와 같이 《방위》라는 말로써 군사 목표에로 (433억 딸라)간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사실 공업 회사들은 소득세의 형태로 216억 딸라를 지불한다. 그런데 그 하단 광주리는 바로 그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군수 공장들에로의 지출을 말한다.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직접 나오는 돈이나 국내 간접 (소비)세나 관세나 기타 징수되는 돈들은 역시 이 군수 공장들에 뿌리어진다.

그것은 어데서부터 나오며 어데로 가는가

도표는 백악관이 인민의 재산을 군비 경쟁에다 소비해 버린다는 것을 충분히 명시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그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상기 수'자는 다소간 정확성이 결핍되고 있다. 우에 지적된 433억 딸라 밖에도 약 20억 딸라가 《호상 방위 계획》의 경제면 기타에 지출된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직접적인 군사비 지출은 453억 딸라에 달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군대보다 좀 우에 그려진 92억 딸라를 광주리에다 끌어 넣으려는 사람은 미국이 과거에 전쟁에 참가한 결과와 군비 경쟁의 결과로 생긴 국가 채무에 대한 리자 지불액을 상징해 준다. 이 총액을 군사비에 가산해야 한다.

그런즉 모르간과 듀폰에게는 새로운 예산을 충당할 온갖 토대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작년 말에 로쓰안젤쓰 시에서 발간되는 《타이므》지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어느 한 비행기 공장 로동자의 안해는 네명의 자녀와 함께 까쓰 자살을 했다 한다. 이 녀자가 남긴 일기장은 각종 부채들 때문에 어머니가 미칠듯 절망했다는 사실을 말하여 주고 있다. 새로운 예산은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는지? 아니다. 새로운 예산은 생활의 안정도 세금과 부채의 감소도 약속하진 않는다.

수천명의 미국 학생들은 당국이 학교 건설에다는 자금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닭장이나 땅굴 같은데서 공부하고 있다. 신년도 예산은 학생들 모두가 그런 장소에서 배우도록 운명 지운다.

대포왕의 리익 배당금의 장성과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의 저락 그리고 학교 대신에 유도란—이것이 반인민적 예산의 본질이다.

"쏘련 문학" 신문에서

(한 동 신 번역)

감탕에 골탕

신 홍 순

구장 (헐떡대며 급히 와서) 황 주사 나리!
순경 어 강 구장 어두운데 이거 어쩐 일이요?
구장 어이구 뭔지 뭔지…
순경 아니 누구허구 싸웠소? 눈통이 다 시퍼렇게 됐게?
구장 사건이 생겼습니다.
순경 사건?
구장 이번에 추곡 수납 독려차로 군에서 파견된 산업 기수허구 우리 면의 윤서기가 매를 맞었습니다.
순경 매를? 어떤놈 한테?
구장 양지'말 산모퉁이 외딴 집에 박 령감이라구 있습죠 그 집 조카놈 한테요.
순경 아니? 국가 공무원을 때리다니?
구장 글쎄 그놈이 령감이 백리 추곡 수납이구 농지 상환곡이구 비료대구 하나도 못 물겠다질 않습니까? 《전번에 조 서말 남은것 까지 빡빡 긁어 가구서두 뭘 또 내라느냐》구 외려 행악을 허는 군요.
순경 그래 그깟 령감을 거냥 뒀어?
구장 거냥 둘리 있나요. 군에서 나온 기수 량반이 쌀 내놓으라구 막 죄겨댔습죠. 그랬더니 그의 조카라나 허는 자식이 안에서 뛰어나오더니 늙은이는 왜 때리느냐구 대들면서 말짱이구 도리깨구 닥치는대루 막……
순경 원 저런!
구장 지금 군 기수허구 면 서기는 다 죽게 됐습니다. 나두 말리다가서 이렇게…(눈통을 만진다).
순경 아니 도대체 그 조카란 자식이 어떤 자식이야?
구장 엊그제 부산서 왔다나요 다리 병신이 된 상이군인이라는데 사람칠때 보니까 절기는 커녕 아주 성한 사람보다두 더 멀쩡 허든걸요.
순경 그럼 그게 혹시 정병 기피자가 아닐까?
구장 옳습니다. 그 자식이 기피자가 틀림 없습니다.
순경 그럼 나허구 같이 갑시다. 흠! 이놈들을 당장…
구장 예서 얼마 머잖습니다. 이 개울만 건너면 고댐 걸요.
순경 아니 다리가 없잖은가?
구장 네 발을 빼야 됩니다. 돌다리가 있던게 이번 눈서기 물에 고만 넘었군요.
순경 으흠 이놈들이 사람 왕래를 끊기 위해서 다리두 안 놓구 사는구나!
구장 황 주사 제게 업히십쇼.
순경 폐 업구 건널만 해?
구장 아 그럼요 (업힌다) 꼭 잡으십쇼. 에차! 뼈가 저리네 (벌벌 떨며 건넌다)
순경 왜 이래? 어? 중심을 잡아 중심을! 제장 비척대긴?
구장 어이구 돌이 미끄러서……
순경 아아 아! 조끔만 더가! 조끔만……
구장 이이 익! (개울 복판에다 태질을 했다)
순경 원 이런! 미시리 같으니! 이게 뭐야? 이게?
구장 아이구 죄송합니다. 돌이 어찌나 미끄러운죠. 원 이런 아래'동아리가 다 젖으셨네…
순경 이런! 전지를 놓쳤구나! 전지를……
구장 전짓쇼? 이거 원 어두워서 찾을 수가 있나?
순경 이런 망한!
구장 어서 가서 화로'불에 말리시도록 하십시다.
순경 옝이 재수 없이…
구장 바루 이 집입니다.
순경 이 놈의 집엔 등잔'불두 없나?
구장 웬 기름이 있나요. 이봐!
순경 아무두 없냐?
구장 웬 일이야? (방문을 여러 제끼고)어서 나와!
순경 빈 집이로군그래
구장 아까까지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순경 음 그럼 이놈들이 어더 숨었겠구나!
구장 베 숨어두 먼덴 가지 않았을겝니다.
순경 그럼 부엌이구 뒤결이구 샅샅이 찾아 봐!
구장 넷.
순경 아니 이 깍지우리에서 뭐가 버썩해? (총을 내대고) 이리 나왔!
소리 냐옹 냐옹!
순경 요론 방정 맞은 놈의 즘생! 거기두 없어?
구장 없는뎁쇼? 그럼 떠나 갔나?
순경 떠나다니?
구장 아까두 그 령감 말이 그렇잖아두 이놈의 농살이 업구 가려던 참이라구 허든걸입쇼.
순경 오막살이나마 내버리구 갈리가 있나?저 변소깐이며 더 찾아 봐!
구장 네.
순경 저건 또 뭐야? 북데기데민가? 옳지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는구나! 에쿠! 이게 뭐야? (연못에 빠졌다)
구장 아니 이건 연못입니다.
순경 어이유! 이런! 자꾸 들어가네
구장 아니 어떻거다 감탕 속에 빠지셨소? 원 참!
순경 어서 내 팔을 좀…어이구 자꾸 들어 간다!
구장 움직이면 안돼요 감탕 속에서 움직이면 더 들어만 가요 자 내 손을 잡으시우.
순경 푸! 푸! 사람 살려——
구장 자 엿사! 이이 익! (또 들어 갔다) 아이구 이런? 아니 이 자식아 놔라 놔.
순경 푸! 푸! 사람 살려——

위험한 기도

홍종호 그림

직녀와의 상봉

리영춘 그림

직녀—나는 베를 한대로 이름이 났는데 주 병선 동무 당신은 30대를 다룬다 하니 그 업적을 크게 찬양합니다

최근에 김 봉호 동무가 창안한 휘발유 절약기를 장치함으로써 운전사들은 기준량보다 20%의 휘발유를 절약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동무도 이번에 많은 휘발유를 절약했던데요

— 김 봉호식 휘발유 절약기 장치의 덕택이지요.

홍종호 그림

최영근 그림

매일 20톤씩 더 생산한다면 1년 후에는?

최영근 그림

조명식 그림

- 아 여기선 꼭스탄도 생산되나요?
- 이건 꼭스 절약 도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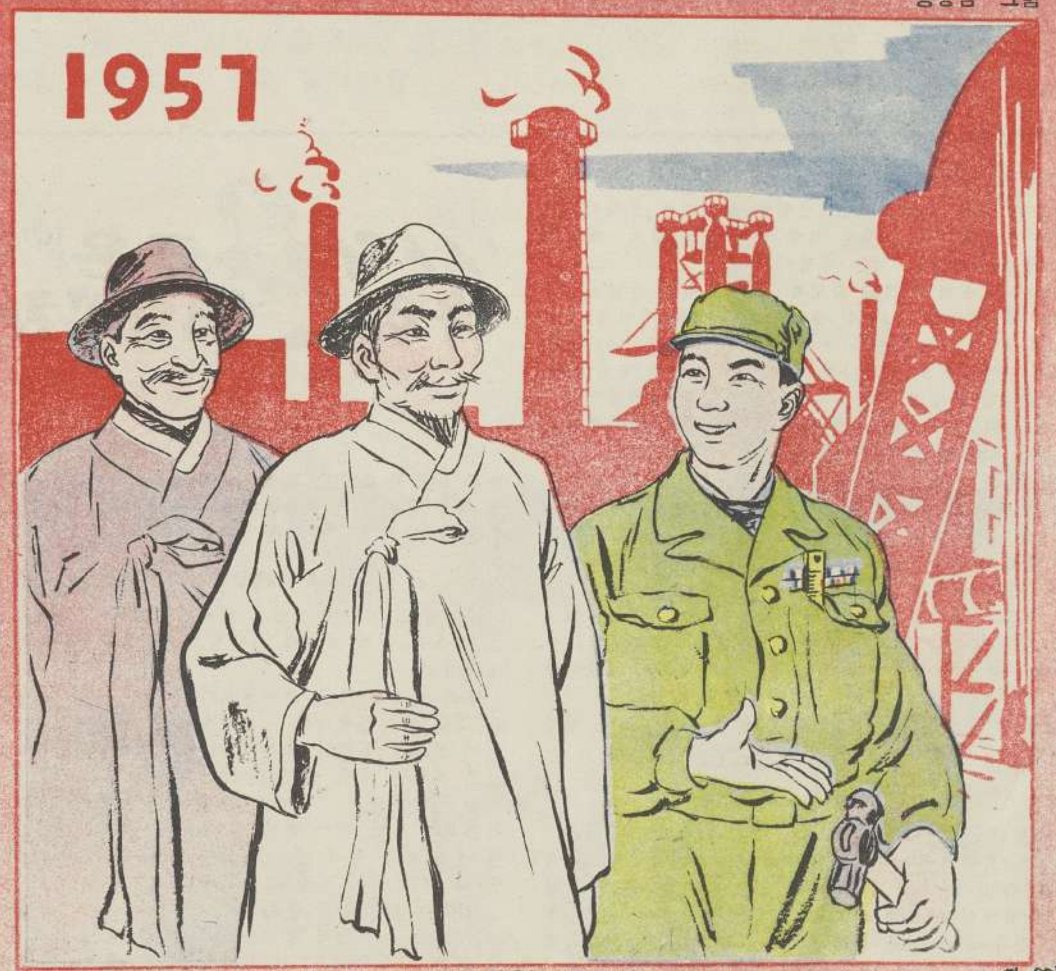
리영춘 그림

로는 당신들도
시 승리자의
에 참가하도록
다

38년 전을 회상하면서

그 날엔 침략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고

송응남 그림



오늘은 침략자들의 멸망을 내다 본다

전야에서 바쁜 조합과 사무실에서 바쁜 조합

— 위원장 동지 어디 가셨소?
— 랭상 모판에 지도하러 나가셨소

— 위원장 동무 빨리 밭에 나가야 되겠어요
— 동무도 보다 싶이 나도 분주하오.

박승히 그림

사람 좋은 우리 작업반장

유 항 림

△말썽 없는게 제일이지

우리 작업 반장은 일부 반원들 사이에선 상당히 인'기가 있었답니다. 사실 사람 좋고 잔말 없고 게다가 또 아주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번은 우리 작업반 청년과 다른 작업반 청년이 두엄낼 때 경주를 한 일이 있었어요. 함께 두엄을 싣고 떠난 두 달구지 중에서 누가 먼저 밭에까지 나가느냐 하는 경주였지요. 한나절 동안이나 지나고 보니 밭에 뿌려야 할 두엄을 반쯤은 길에 뿌리지를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작업반의 청년은 자기네 반장한테 톡톡히 비판을 받고서 점수도 깎이였지만, 우리 반장은 이런 일엔 아주 융통성이 있어서 못본척 모르는척 했답니다.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밖에…

제초 작업 때도 마찬가지지요. 김을 허리만 슬쩍슬쩍 자르며 나아가는 것을 보드래도 다른 작업 반장들 같이 돌때 세워서 고쳐 매게 한다든가 점수를 깎는 것은 너무나 각박한 짓으로 안답니다.

《여긴 관리 위원장 동무랑 늘 다니는 길 옆인데, 여 만은 좀 잘 맵시다.》하고 간청하는 것이 고작이랍구. 우리 반장 동무는 늘 이렇게 말하지요.

《거 뭐 메주알 고주알 캐려면 끝이 있나. 그저 말썽이 없는게 상수야…》

△용감한 경우

반장 동무가 상당히 용감성을 발휘한 때도 있답니다.

농산 작업에서는 총 로력 공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무턱 대고 점'수를 후하게 줄 수는 없지만, 기타 작업에 들어서면 인심을 쓰지요. 개간 공사, 동 보수 공사, 건축 공사 같은데 동원 될 때면 200% 300%의 점'수를 벌군 한답니다. 반장 동무 덕택이지요. 관리 위원회에 가서는 우는 소리를 여러가지로 늘여놓고 갖은 애로 조건을 다 말하고는 기준량을 될수록 헐 말아다가는 게다가 또 작업량을 측정할 때 다시 인심을 쓰지요. 그러다가 만일에 관리 위원회에서 캐고 들면 누구 눈에나 뻔한걸 가지고도 피'대줄을 세워가며 아주 용감히 항변한답니다. 기타 작업 때면 사람 좋은 우리 반장이 인심을 쓰는 때랍니다.

△ 호상 리해의 정신

반원들도 그를 너그럽게 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오는 말이 고우니 가는말도 곱다는 격일는지도 모르지요.

우리 반장은 다른 작업반보다 일찌기 작업에 착수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미처 나오지 않은 반원이 있으면 분주히 깨우려 다니군 한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후에 간혹 반장과 의논할 일이 생기면 그때는 난처하지요. 반장 동무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런 때는 그의 집으로 달려간답니다. 그러면 사람 좋은 우리 반장은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새벽에 채 자지 못한 잠을 보충하고 있군 한답니다.

이런 경우엔 눈을 부비며 일어나면서 싱글 웃는답니다. 나도 동무들이 결함을 보고도 못 본척 했으니 이 맘 일쯤 의례 모르는 척 하겠지 하는 표정이랍니다.

△협의제란 토론에서만 필요한지

어느날 새벽에는 달수 령감이 어마어마한 무장을 갖추고 나왔더군요. 꽁무니에는 낫 한가락과 호미 한자루를 질렀고 손에는 삽을 들고 어깨에는 쇠스랑을 멨어요. 그날 할 작업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여러가지 연장을 가지고 나온게지요. 아침에 나와서야 비로소 반장한테 작업 지시를 받군 하니까요.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나오면 무슨 작업을 하게 돼두 연장을 가지러 집으로 뛰여 들어가는 일은 없단 말야!》하고 달수 령감은 자신있게 장담하더군요. 그러나 그날도 달수 령감은 집으로 뛰여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소 달구지를 끌고 읍에 갔다 오라는 지시를 반장 동무한테 받았으니까요.

우리 반장 동무는 협의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토론 가운데서만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매사에 모든 일을 혼자서 안고 돌아가지요.

그러다 나니, 이앙 때만 해도 모'줄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좁은 논판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서서 밀집부대를 만들고 나아가며 엉뚱이 싸움을 일삼게 되였답니다.

△피할 수 없는 말썽

우리 반장이 금과옥조 같이 생각해 오는 것이 말썽 없이 지내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눈도 감아주고 알고도 모르는 척 해 왔지만, 그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말썽이 끝내 생기고야 말았답니다.

생산 계획을 초과 실행한 작업반들에선 현물 우대만도 매 로력당 벼를 두세 가마니씩 타게 됐는데, 우리 반에서는 루하 로력은 계획을 초과하고 생산 계획은 미달하고 보니 현물 우대가 다 뭡니까?! 도리혀 로력 점수는 꽉 [illegible] 분배량이 다른 작업반에 비할 바가 아니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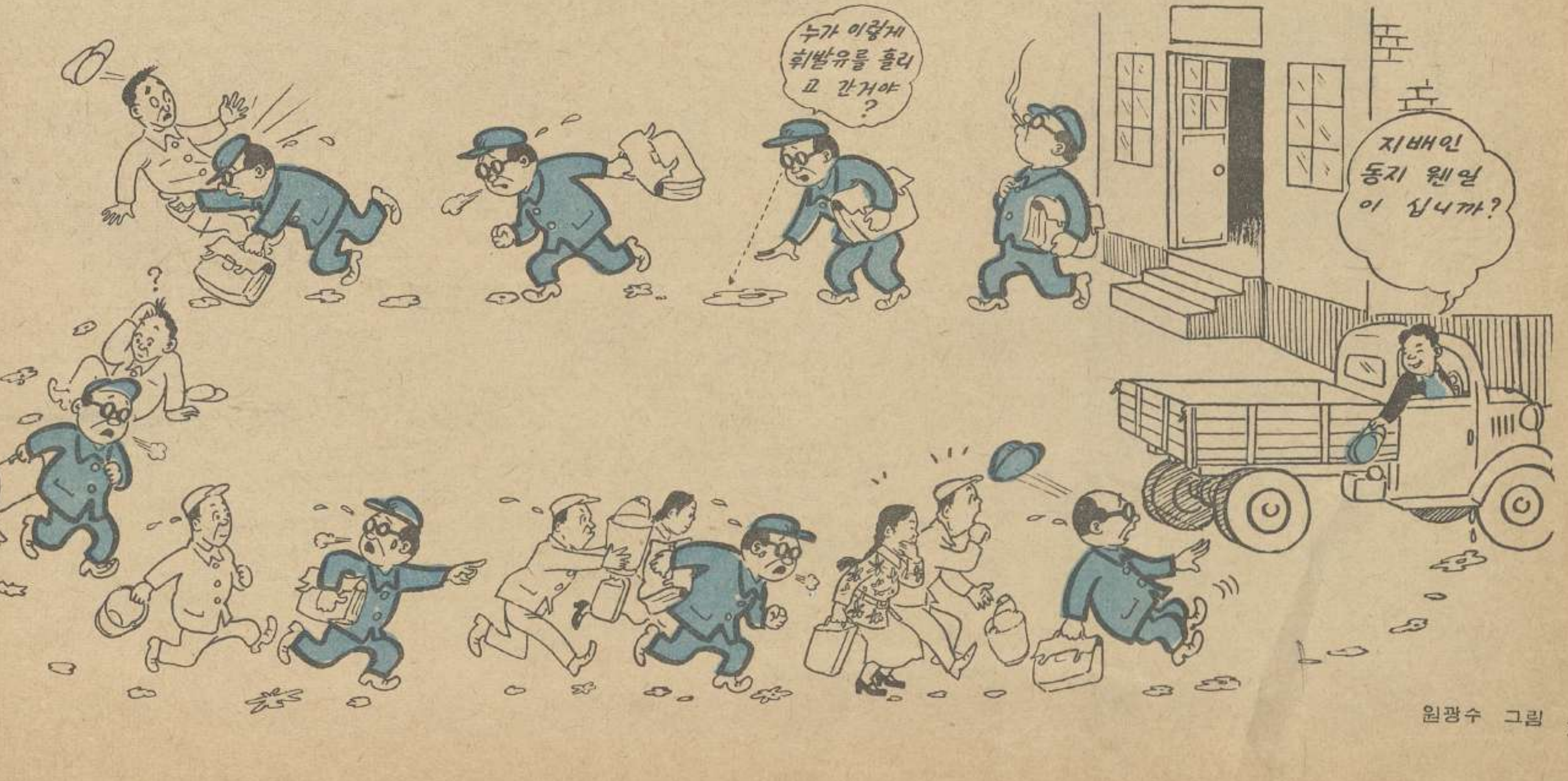
그러니 불만인들 왜 없겠어요. 이런 말썽은 반장 동무가 눈을 감아도 모른척 해도 없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고 보니 반장동무가 제일 싫어하던 말썽, 그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말썽거리를 반장 자신이 한해 동안 준비해온 셈이 되는구만요.

체험에서 나온 설계

— 왜 보일라통 놓을 지하실을 작게 설치했소?
— 우리처럼 사무실로 쓰게 될까바요

최영근 그림

흑색 광업 관리국 설계반은 어둠침침하고 물이 떨어지는 지하실에서 사업하는 관계로 깨끗하고 정밀한 설계 작성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원광수 그림

록음실

김 상애

열렬한 간청에 보답하여

우리 활살사에는 가끔 국제 전보가 온다. 그런데 하루는 우리 사업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국제 전보가 한장 배달되였다. 내용인즉 어느 상품 몇 톤이 도착했는데, 잘못 발송한 듯 싶으니 속히 회전을 바란다는 어느 외국의 무역기관의 전보였고 물론 우리사에 오는 것은 아니였다. 우리 사에서는 곧체신성 전신국에 련락하여 그 전보를 가져 가게 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에 발신인 수신인이 전과 같고 내용도 전과 꼭 같은 전보가 또다시 배달되였다. 모름지기 전번 전보의 회답을 받지 못한 외국의 무역 기관에서는 기다리다 못해, 다시 전보를 친 모양이였다. 그래서, 전보를 배달하여 온 통신원에게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전보 뒷장에 수신인까지 밝혀서 써 주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며칠이 지나서 꼭 같은 전보가 또한번 배달되였다. 이렇게 되고 보니, 우리 활살 편집부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어졌다. 전신국에서는 자기들이 얼마만큼 《모범적으로 사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국 독자들에게 소개해 줄것을 열렬히 그리고 인내성있게 견결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 막을 수 없는 간청을 들어주어 여기에 그 전말을 소개하는 바이다.

문화적인 배려에 대하여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탄광 부문 일'군들에게는 기름 육류 어물 간유등을 달마다 무상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현금 수입도 급격히 장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광 부문 일'군들의 물질적 문화적 요구도 날로 장성하고 있다.

이렇게 장성되는 로동자들의 수요에 보답하기 위하여 삼신 탄광에서도 여러가지로 대책을 세웠다. 구락부도 있고 도서실도 있고 유선 방송도 있고 직장 상점도 있고 써클, 그것도 언제인가 한번 한일이 있었고…

그런데 삼신 탄광 로동자들은 늘어가는 수입에 발맞출만 한 문화적 시설이 없다는데 대해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활살은 그 원인을 알아 보았다.

《구락부에서는 영화를 매일 돌리긴 합니다마는 거리도 멀고 춥기도 해서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탄광 구락부가 춥다니 어쩌된 셈이요?》

《스팀이 잘 돌지 않아서요.》

그건 그렇다 치고, 주택 마을에서 5리나 되는 사무실 아래층에다 구락부를 정해 놓았으니 리용하기에 불편할 밖에……어떤 곳인가 하고 발을 들여 놓았더니 어쩌나 스산하고 추운지 곧 나오고 말았다.

도서실로 가 보았다.

《책은 많지만 최근까지도 닫혀 있다싶이 했어요. 2월 초부터야 도서실이 열리게 되였지요.》

《책을 읽을 자리가 없군요?》

《빌려다가 집에서 읽지요.》

유선방송은 중앙 방송을 중계할 뿐.

써클은 유명무실—

직장 상점에서는 우에서 배정되여 내려오는 공업 제품만 취급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것이 상점 일'군들에게는 아주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 탄광 로동자들은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직장 상점에서 식료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은 장날을 기다려서 산 넘고 강을 건너 십리가 넘는 사동에서 무 배추 같은 것까지 사 날라야만 된다. 그렇다고 이 직장 상점 일'군들이 식료품을 사나르는 아주머니들에게 방조를 전혀 주지 않었다고는 말할수 없다. 사동 장까지 왕복하노라고 신발을 터치는 아주머니들을 위해 신발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고 있으니까.

사귀기 두려운 동사무장

감북동 사무장 김 룡운은 허우대 좋고 위풍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임자, 좀 주의해서 처신하게》

《뭘 말인가?》

《한번두 아니고 세번씩이나 김 룡운 동 사무장과 함께 다니는 걸 봤으니 말야.》

《그게 뭘 나쁜가?》

《나쁠건 없지만, 동네 사람들이 임자두 밀도살이나 밀주를 해 먹거나 투전'군인줄로 알 념려가 있으니까 말야.》

《에끼, 고얀 사람 같으니…》

《화 낼건 없어, 우리 동 사무장이 자주 드나드는 집들을 좀 자세히 알아 보란 말야. 그가 기신기신 자주 찾아 가군 하는 곳은 밀주 밀도살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집들이라네.》

〈그러니까, 만날 적마다 술냄새를 풍기군 했었군!

절약이냐 랑비냐

각 건설장들에서는 방대한 수량의 판 유리를 요구하고 있다. 남포 유리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치렬한 증산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나라에서 쓰고도 남을만큼 많은 유리를 생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남포 유리 공장에서는 또한 아주 《창발적인 절약》에서도 특출하다. 포장용 널판자를 지내 《절약》하기 위해 돌집인 유리를 포장하기에는 너무나 약한 널판자를 사용한다. 게다가 로력까지 《절약》해서 약한 널판자 조차 대강대강 포장하고 하조 일'군들은 정성까지 《절약》해서 되는대로 짐을 꾸린다.

그런 결과에 한 상자에 26~28매씩 들어 있는 것이 건설장 까지 도착하고 보면 5~6매는 파손 되는 때가 많다. 건설장 로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유리가 한장도 깨지지 않은 상자를 보면 여간만 반갑지가 않아요.》

눈서기 때 도로상에서

오리— 얘야 덤비지 말아, 이번에도 30분은 걸려야 빠져 나올게야……

조명식 그림

가축들의 신소

리영춘 그림

돼지— 벼'겨에만 의존하다가 우리들을 때때로 굶기지 말고 뚝감자, 호박, 칡뿌리도 좋다고 써 넣시요.

골수염 환자

김 영철

——보고자의 보고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하며
전자들의 비판을
전폭적으로 접수하며……

량심의 《가책》 받아
부장이 《뼈저리게》 자비한다
울상으로 엮어진 바자 넘어로
노여움이 비수처럼 번뜩이누나.

그 담엔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무슨 《적》 무슨 《성》의 련발이다
소문 난 토론 명수이거니
청산 류수도 울고 가리!

끝으로……한 시간
마감으로……또 한시간
그러고도 연단에서 내려올 제면
이상 《간단히》 토론했다고!

회의가 끝나자—
부장은 성난 목소리로
자기 방에 모주리 불러들였다
자기를 비판한 사람들을

——내가 부장임을 알고 있다면
조심들 해야지 자미 없소!
비판은 전적으로 접수하면서
물론 뼈저리게 자비하지만……

회전 의자에 누울 듯이 기대여
두 발을 책상 우에 멋있게 놓고,
부원들을 아래 우로 훑어보며
열병 환자처럼 신음하거니,

아 이거 큰 일 났다
골수염에 걸렸구나,
옥체 건강하시다면야
그의 뼈가 간대로 저리랴!

그럴줄 알았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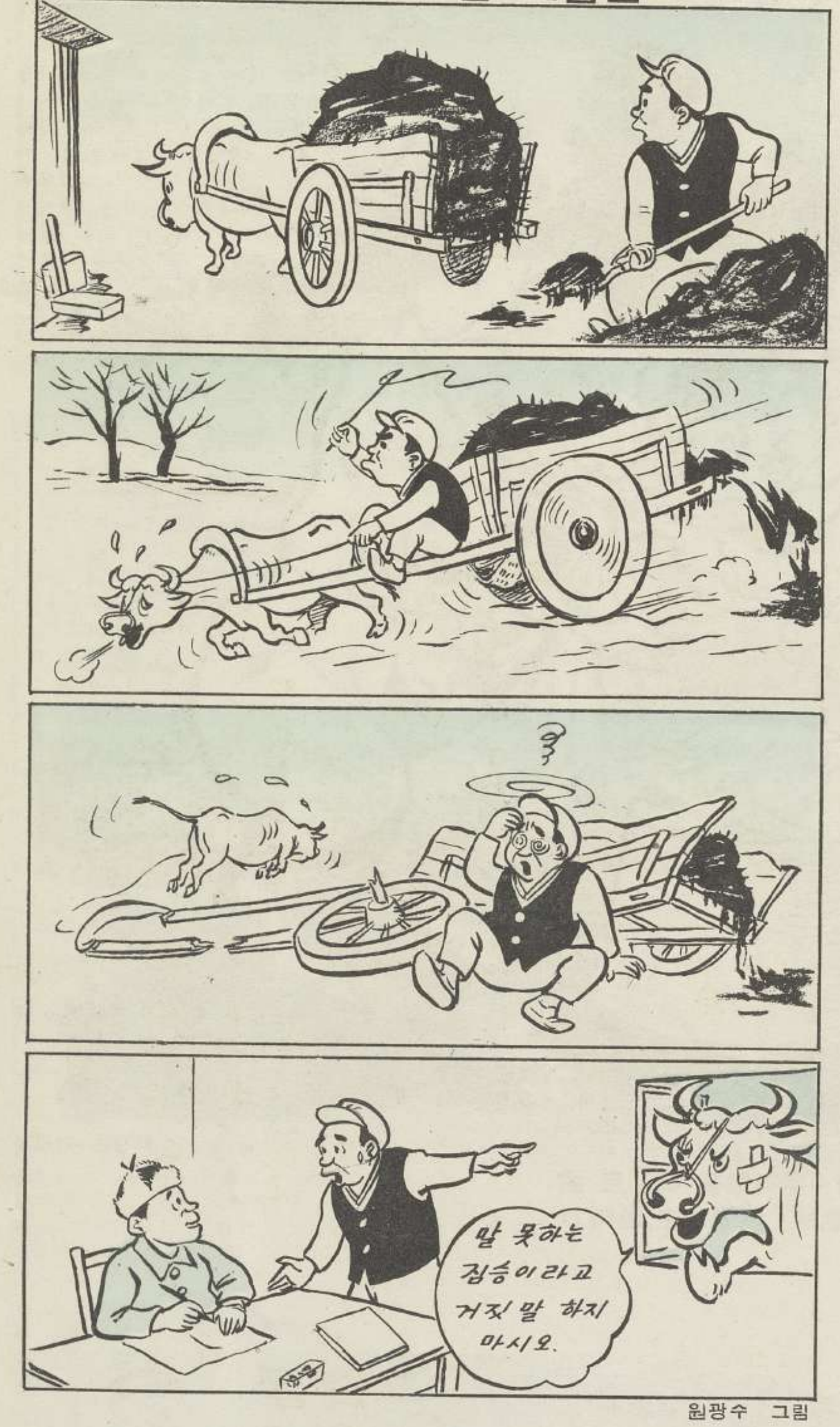
신 동철

그 치 비판두 톡톡이 받았다지?
그래 가까히 말아야지.
그런데 과장 동무는 왜 친할까?
옳지, 인정까지 멀어서야 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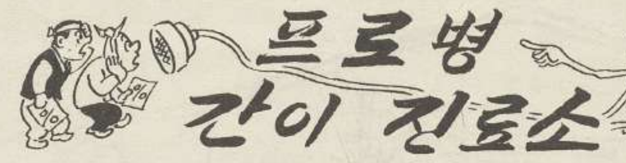
그 동무 오늘 모를 일인데?
그래 단단히 지적 받았다지?
그렇지 멀리 하는게 상수야,
원래 그런 치라지……

아! 세월두 흘렀구나……
새로 온 부장이 그 동무가 아닌가!!
그럴줄 알았더면
벌써 친해 뒀을걸……

소가 싫어하는 조합원



원광수 그림



프로병 간이 진료소

유 항림

요즘 농업 협동 조합들에 새로운 류행병이 적지 않게 퍼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간이 진료소를 특설했다.

본인이 자진해서 찾아와 진료를 요구한다면 더욱 좋다. 조합이나 작업반에서 환자를 보내 주어도 좋다. 또는 요구에 따라서는 왕진도 하며 류행병이 발생할 념려가 있는 곳으로는 수시로 회진도 한다.

최근에 생긴 진료소이므로 아래에 그 실례 몇을 들어서 사업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는 바이다.

△ 복통 ?

의사—배가 어떻게 아프신가요?

환자—우리 작업반에선 일은 남보다 곱이나 힘들여 했는데 분배는 다른 작업반 보다 적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만 하면 그만 배가 아파서……

의사—일을 많이 했으면 분배도 많이 탈 것 아닙니까?

환자—그러니까 기가 막히단 말이예요. 모내기까지는 일이 순조롭게 됐어요. 다른 작업반들에선 참 고지식두 하더군요. 그러나 우리는 솜씨있게 모내기를 했지요. 전엔 평당 50~60포기를 꽂구두 먹었는데 150포기씩이나 꽂구 있겠어요. 그래서 눈짐작 손짐작으로 90포기나 100포기쯤 꽂았지요. 그리구 줄을 꼭꼭 맞춰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열병식인가요 뭐? 그래서 줄을 대강 자세히 맞췄지요. 이렇게 해서 모내기는 선참 끌내구 뽐을 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김매기에 들어서자 아무리 애를 박박 써두 맨 꽁무니에 떨어지지 안겠어요. 다른 작업반 들에선 제초기루 쭉쭉 밀구 나가구, 게다가 축력제초기까지 대서 이랴 낄낄 하면서 눈 깜박할 사이에 한배미씩 매나가는데 우린 축력 제초기는 고사하고 인력 제초기 조차 임의로 쓰지 못할 데가 많거든요. 줄이 왜글 쩌글한 데다가 너무 좁아져서 제초기두 쓰지 못할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 호미로나 매는 수 밖에……

의사—아하 알겠습니다. 동무의 배 앓이는 프로병에서 오는 겁니다.

漫画 – 중국 "만화"

중국 풍자 만화 잡지 《만 화》 1956, 70호에서 전재

장 락 평 그 림

우' 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다

△ 왕진

하루는 새벽 일찌기 왕진 요청을 받고 어느 작업반으로 바삐 달려 갔다.

작업 지시를 주던 중에 반장과 분조장간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었다.

《동무네 분조는 저기 저 목화 밭의 제초를 하시오.》

《우린 여기 콩밭을 매면 좋겠는데요.》

《저 목화 밭은 먼저' 번에도 동무네 분조가 제초한 것이니까 이번에도…》

《그래두 우린 콩밭을 매면 좋겠어요.》

콩밭 제초를 하는 편이 어째서 더 합리적인가를 분조장은 증명하려고 여러가지로 노력했다. 처음은 분조장의 의견을 왜 무시하려 하는가 해서 우리는 반장이 관료주의자가 아닌가 의심했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 분조가 먼저' 번에 목화밭을 맬 때는 하도 눈얼림으로 김을 맸었기 때문에 요즘은 김이 무척 자랐다. 그래서 이번 제초에는 전번과 같이 그렇게 쉽게 먹지도 못할게고, 또 반장이 눈을 밝히고 있으니까 그 목화밭 매기를 꺼려하는 것이였다.

우리 진료소에 왕진을 요청해 온 것도 이런 병 정세 때문이였다.

△ 근시안

어느 협동 조합에서 몇 명의 환자를 보내왔다. 그들의 병 정상에 대한 관리 위원회의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동막이 작업에서도 같은 정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동무들은 동을 쌓을 때는 매일300%씩이나 점 수를 벌었는데 그 비결을 알아 보았더니, 지정된 장소에서 흙을 파 나른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의 논바닥을 파서 날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못과 같이 된 이 논바닥에는 다른 곳에서 흙을 다시 운반해다 메우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 피부병 ?

뜨락또르 운전수 한분이 진료소 문을 열고 들여다 보며 물었다.

《머리 가려운 데 바를 약은 없습니까?》

《피부병이면 다른 진료소로 가보십쇼?》

《거 참 야단 났군! 뒷머리가 자꾸만 가려워서 장가두 못가겠구!》

그래서 뒷머리는 어떻게 가려우며 또 그게 장가 가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하아 이거 원 야단인데요. 동네 녀자들은 나를 보기만 하면 입을 비죽거리며 눈을 흘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손이 저절로 올라가 뒷머리를 긁군 했지요. 그랬더니 뒷머리에 헌데까지 생겼어요. 녀자들의 미움을 사는 판이니 장가 가기두 다를린 일이구요.…예 그 리유를 말씀 드리지요. 그건 논을 너무 되는대로 갈아줬다구 해서 그러는거죠. 어떤 곳엔 흙이 무데기루 쌓이게 갈구, 어떤 덴 개울 바닥처럼 파 놓기두 하구, 건드리지 않아야 할 논두렁을 파번져 놓기두 하구……심지어는 모를 꽂으려 논에 들어서면 가슴노리까지 쑥 빠지도록 파놓은 자리두 있다구 합니다 마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실 정갱이 우에까지 빠지는 일이야 가끔 있다는 건 나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쇼. 그런 걸 다 생각하다가야 어떻게 책임량을 150%로 초과 실행하겠어요. 그런 불평쯤 모르는척 하는 수 밖에……》

《그러시다면 여기 앉으십시오. 고쳐 드리죠 동무두 프로병에 걸렸구만요.》

△ 회진

동네 안을 두루 회진하던 중에 우리는 몇 집의 부엌에서 프로병이 발생했다는 현저한 징후를 발견했다.

아궁으로 들어가는 벼'짚 북데기 속에서 온전한 벼이삭을 적지않게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벼'짚 낟가리들을 수색한 결과 그중의 하나에는 온전한 벼이삭들이 많다는 것을 곧 알아냈고, 다음에는 그 낟가리를 탈곡한 사람들을 찾아 낼 수 있었다.

한알의 쌀이라도 아끼자는 구호는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한해동안 땀 흘리며 가꾸던 자신들의 로력도 잊었는지, 이 사람들은 단순히 탈곡 작업에서 프로'수만 더 벌려고 벼이삭을 채 털지 않았던 위독한 프로병 환자들이였다.

△ 치료 방법

이상에서 간단히 프로병의 몇가지 정세를 소개하였다. 많은 해독을 가져 오는 이 질병이 발생했거나 혹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을 때는 우리 진료소와 긴밀한 련계 밑에 제때에 치료하도록 하여 주기를 요망한다.

그런데 치료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일일히 다 말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계급 사상 체득 료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은 간단히 말 할 수 있다.

누가 더 좋은걸 샀는가

최영근 그림

— 아즈버니 장 많이 봐 가시는구려?
— 에헴..................

— 아주머니 장 많이 봐 가시는구만요?
— 작년에 사 놓은 돼지 덕분이지요

편집 위원 장 진광, 유 항림, 김 선락, 박 기성, 정 준기
신 홍순, 백 인균, 송 용남, 리 수근

발행소 활 살 사 인쇄 1957. 3. 10 ㄱ—40404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7. 3. 15 값 (50)원

갈길은 먼데……

Б ПЭК
УЛ. ЧАЙКОВСКОГО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
22 1.12 Н8034

8034 ХВАЛ САЛЬ

박승희 그림